



코스피 2088.06 (+20.01)	코스닥 681.38 (+9.82)
금리 (우대금리) 1.93 (+0.01)	환율 (원/달러) 1129.20 (-5.10) (15일)



[G-STAR 2018]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신작 게임 대거 공개
08·09

삼바 고의분식 결론, 회계업계 거센 후폭풍

“원칙중심 IFRS 왜 도입했나, 당국이 기준 만들라”

금감원이 판단 나서면 감사현장 대혼란 초래
“美 회계기준처럼 규정중심체제로 돌아가야”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차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전의 세세한 룰 베이스(rule-base)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15일 바로 거래가 정지된 것은 물론 증장세를 받은 회계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원칙 중심의 IFRS가 오히려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을 묶어매는 형국이다.
감독당국의 잦아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회계처리 사

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졌다. 원칙중심(네거티브방식)의 IFRS는 규정중심(포지티브방식)과 달리 큰 틀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회계 위주로 내몰리고 있다. 마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찍 도입한 IFRS가 상장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됐다.
◆“감사현장 혼란 불가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위반을 놓고 2015년까지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봤다. 과징금 1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돼 15일 주시거래가 정지됐다. /연합뉴스

7000만원 부과와 함께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등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바뀔 확률은 크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당시 감사인이었던 안진이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비하면 수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지적이다.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실을 숨겼던 과거 전통적인 분식회계와 달리 이번엔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을 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달리 IFRS

는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이후 그 근거만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며 “이번처럼 판단 자체를 당국이 하려고 나설 경우 감사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이럴 바엔 당국이 모두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는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단하기 나름...이의제기하기 어려울 것”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을 놓고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것이 회계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메트로, '수능문제 및 답안 수록' 특별판 발행... 수험생에 배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앞에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 수능 특별판에 실린 답안지를 살피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어·수학 신유형 출제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2019 수능 난이도 분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치러졌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전년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과 전년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신유형 문항이 적지 않아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난이도는 상위권은 쉽게, 중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유지할 정도의 난이도로 분석됐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이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어 영역에서는 26번, 31번, 42번, 11번이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작년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컷 94점, 만점자 비율이 0.61%로 어려웠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31번 문항은 과학 지문이 두 면에 걸쳐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이 26번~31번 문항을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뒤에 나온 문제 풀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매우 쉬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물론 다소 까다로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작년 수능(94점 추정)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영역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장교사로 참여한 조만기 판교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

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이라며 “수학 나형에서 21번, 29번, 30번, 21번과 29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학기형에 대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전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수학나형에 대해서는 “전년(만점자비율 0.11%)과 비슷하게 출제돼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1~2등급대 학생들에게는 다소 쉽게, 3등급대 이하 학생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능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 4924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재학생은 44만 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 6813명이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제일제당, 美 식품업체 ‘쉬완스’ 2조원에 인수

그룹 사상 최대 해외 M&A
K푸드 확산 美 플랫폼 확보



CJ제일제당이 미국 전역에 걸친 식품 생산·유통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K-Food 확산 플랫폼’을 확보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미국 냉동식품 전문기업 ‘쉬완스 컴퍼니’를 전격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CJ제일제당은 이사회를 열고 쉬완스 컴퍼니를 총액 18억 4000만 달러(약 2조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인수 이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장을 위해 기존 대주주로부터 지분 20% 재투자를 유치했으며, 적자사업부인 ‘홈 서비

스’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무 부담을 낮췄다. 이 중 13억 4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는 CJ헬스케어 매각대금 등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5억 달러(약 5500억원)는 쉬완스 컴퍼니의 자체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양사는 기업결합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쉬완스 컴퍼니는 지난 195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설립된 냉동식품 전문업체로 전국 단위 냉동식품 제조 인프라와 영업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7개 생산공장 10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자, 파이, 아시안 애피타이저 등 시장에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과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툰다. 올해 매출은 2조 3000억원(홈 서비스 사업 제외), 상각전이익(EBITDA)은 2460억원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번 인수로 CJ제일제당은 세계 최대 가공식품 시장인 북미를 본격 공략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우선 CJ제일제당이 기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오크하이오 등 5곳에 보유한 생산기지가 4배 이상인 22개로 대폭 확대된다.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물

류·유통·영업망도 동시에 확보된다. 이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채널에 집중되어 온 ‘비비고’ 등 기존 CJ제일제당 브랜드 제품들이 북미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등으로 올해 미국 시장에서 4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이 예상된다.
기존 만두, 면 중심의 간편식품 목도 피자, 파이, 애피타이저 등 현지에서 대량 소비되는 카테고리도 확대되면서 향후 한식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